





경제 동향

- **요 약**
- **경 기** 생산/출하·재고 순환/소비/물가
외국인투자
- **고 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
- **부동산** 건설경기/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 융** 시중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신용보증동향/수출입동향

<p>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감소폭 확대(7월:-4.7%→8월:-10.8%) - 8월 서울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73.3(2000=100)으로, 전년동월대비 중공업과 경공업이 각각 24.5%, 6.1%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10.8% 감소함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소폭 상승(7월:4.2%→8월:6.1%) - 8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과 대형마트부문이 각각 5.8%, 5.1%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5.5% 증가함 ○ 서울의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상승 - 9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6% 상승하여, 지난 5년간 서울의 9월 평균 물가상승률(0.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p>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를 전년동월비 포함세 - 9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3%p 증가한 63.1%로 남자는 74.8%, 여자는 52.0%임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증가세 지속 - 9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7% 증가한 497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됨 ○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9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한 3.8%로, 전국과의 실업률 격차(0.8%p)는 6월 이후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큰 폭 증가 - 8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2조 3,257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7.9% 증가함 - 발주자별로 보면 기타토목(지역난방열수송관) 부문의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44.8% 증가하였으며, 신규·재건축·재개발주택 및 사무실 부문의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358.4% 증가함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9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0.1%p 증가함 - 9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4% 상승하였으며, 단독주택은 0.9%, 연립주택은 0.8% 각각 상승한 반면, 아파트는 0.1% 상승하는데 그침
<p>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역 대출금 증가액 축소 - 8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395조 247억원으로, 전월대비 5조 6,983억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액은 전월(7조 2,077억원)보다 크게 축소됨 ○ 서울의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크게 감소 - 9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전년동월대비 25.4%(-420개) 감소한 1,233개로, 전국대비 지역별 비중은 38.5%로 나타남 ○ 서울의 부도업체 수 전월대비 감소, 어음부도율 상승 - 9월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월(63개) 보다 11개 감소한 52개로, 2006년중 평균(74.3개)을 하회함 - 9월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대비 0.01%p 상승함 ○ 원/달러 환율 하락 - 9월중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인하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달러 약세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915원대까지 하락함

| 생 · 산 |

8월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감소폭 확대

■ 전국 산업생산 견실한 증가세

- 8월 전국의 산업생산은 수출호조와 내수지표 개선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1.2% 증가하여 전월(14.3%)에 이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함
- 7월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이는 기저효과 등 불규칙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산업생산의 견조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업종별로는 반도체 생산(29.4%) 증가세가 지속되는 한편 자동차(18.1%), 기계장비(9.4%) 등이 산업생산 증가를 주도함

■ 서울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폭 확대

- 8월 서울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73.3(2000=100)으로, 전년동월대비 10.8% 감소하여 감소폭이 크게 확대됨
- 업종별로 보면 가죽·가방 및 신발 등에서 증가한 반면 기타기계 및 장비, 인쇄출판,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화합물 및 화학제품 등에서 감소함

■ 서울 중공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폭 크게 확대

- 산업부문별로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4.5% 감소하여 감소폭이 크게 확대됨
- 세부업종별로 화합물 및 화학제품(의약품, -93.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39.5%), 컴퓨터 및 사무기기(-38.0%), 기타기계 및 장비(전기용접기, -25.5%),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무선통신중계기, -20.9%) 등 대부분이 감소함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6.1% 감소하여 감소폭이 소폭 확대됨
- 세부업종별로 가죽·가방 및 신발(6.3%), 종이제품(5.4%) 등이 증가한 반면 음식료품(-17.4%), 섬유제품(-8.4%), 인쇄출판(서적, -6.0%) 등은 감소함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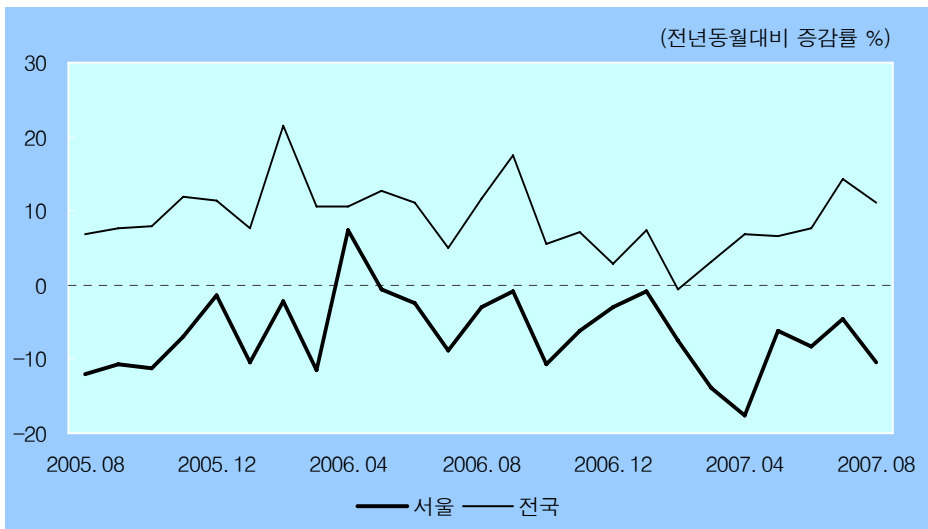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8월	4월	5월	6월	7월p	8월p	
전 년 동 월 대 비	전국	11.7 (3.8)	6.8 (3.2)	6.7 (1.0)	7.6 (1.9)	14.3 (2.0)	11.2 (0.8)
	서울 (제조업)	-3.6 (2.2)	-18.8 (7.7)	-6.6 (-8.2)	-8.5 (-4.5)	-4.7 (-2.0)	-10.8 (-4.3)
	중공업	-20.9 (2.2)	-44.1 (29.2)	-10.7 (-16.3)	-13.3 (2.7)	-14.7 (-19.9)	-24.5 (-9.5)
	경공업	4.4 (2.3)	-0.8 (1.0)	-5.1 (-5.0)	-6.5 (-6.9)	-1.2 (4.9)	-6.1 (-2.7)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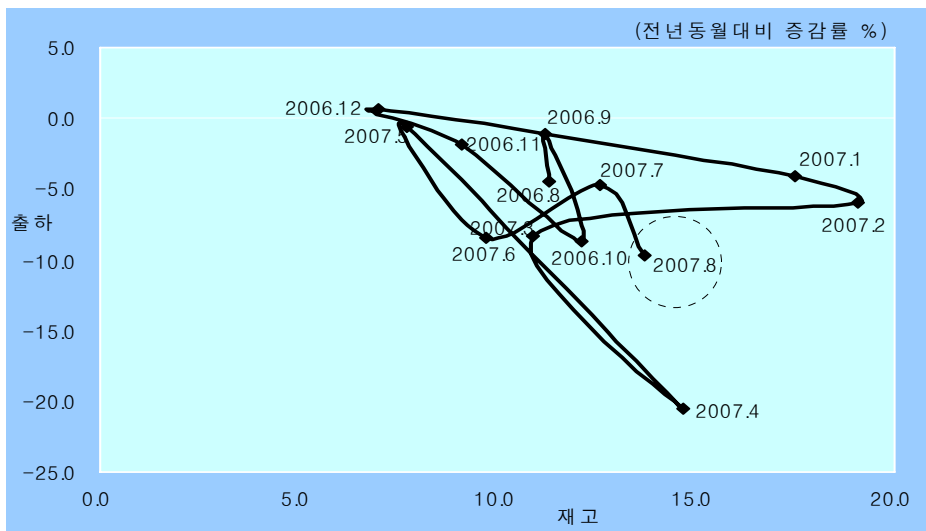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8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누증 단계

- 서울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세 확대, 재고 증가세 확대
 - 8월 서울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9.7% 감소하고, 재고는 13.7% 증가함
 - 서울 제조업 출하·재고를 중심으로 한 경기 순환 분석 결과, 출하 감소세가 다시 확대되었고 재고 증가세도 확대됨에 따라 불규칙적 모습을 보임
 - 출하·재고 상황은 전체적으로 출하 전년동월비는 하향하고 재고 전년동월비는 상향하여 재고누증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재고 ↓	재고 ↓	재고 ↑	재고 ↑
출하 ↓	출하 ↑	출하 ↑	출하 ↓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소폭 상승

- 8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90.7%로 전월대비 2.0%p 상승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222.1%로, 전월 보다 5.1%p 상승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7.3%p 상승한 271.5%로 여전히 높은 재고율을 나타냈고, 경공업부문도 4.7%p 상승한 205.9%로 높게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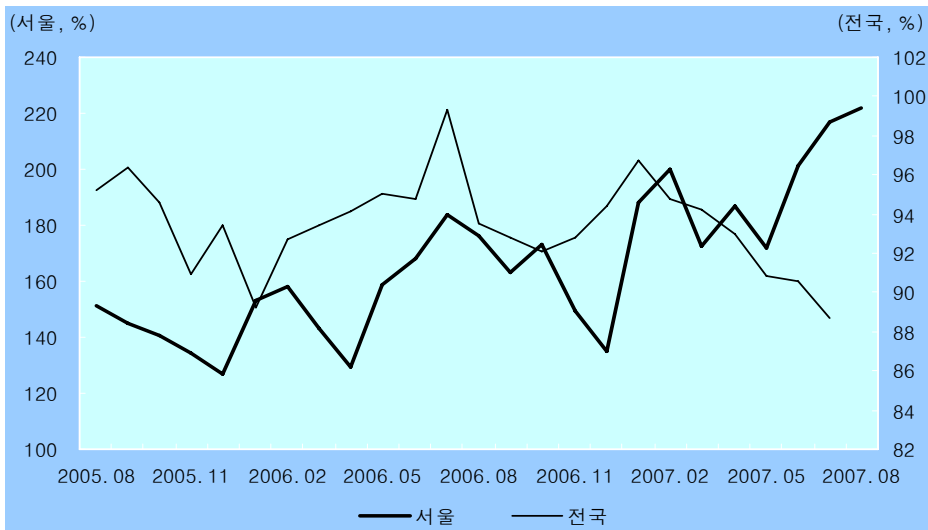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대비 증감	
	8월	4월	5월	6월	7월p	8월p		
재고율	전국	93.5	93.0	90.8	90.6	88.7	90.7	2.0
	서울 (제조업)	176.3	186.8	172.0	201.3	217.0	222.1	5.1
	중공업	136.5	226.6	153.8	217.4	264.2	271.5	7.3
	경공업	188.3	172.4	178.5	194.0	201.2	205.9	4.7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8월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소폭 상승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 소폭 상승

- 8월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3조 5,609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1% 증가하여 증가세가 소폭 확대됨
- 백화점은 음식료품, 운동·오락용품, 가전제품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함
- 대형마트는 음식료품, 가전제품, 의복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6.0% 증가함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 소폭 상승

- 8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1,27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5% 증가하여 증가세가 소폭 확대됨
- 백화점부분의 경우 신규사업체 증가에 따라 5.8% 증가함
- 대형마트부분은 신규사업체 증가에 따라 5.1%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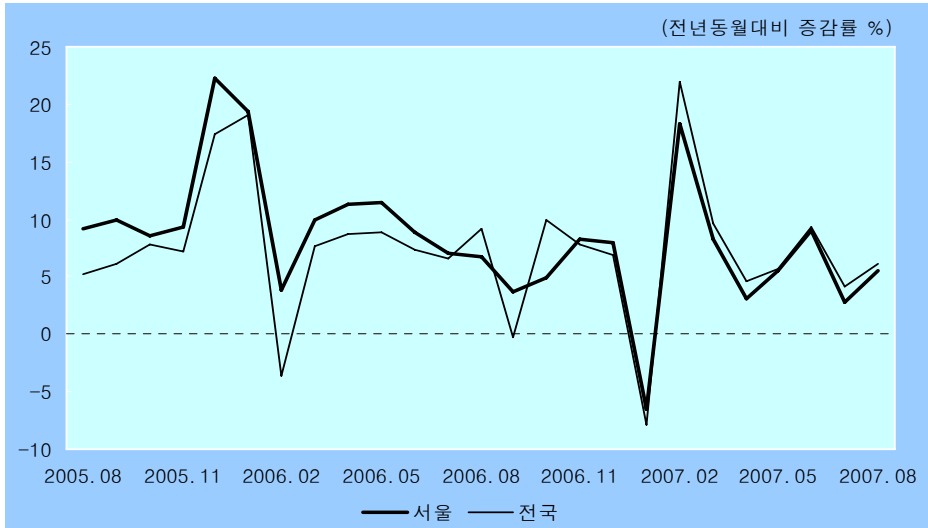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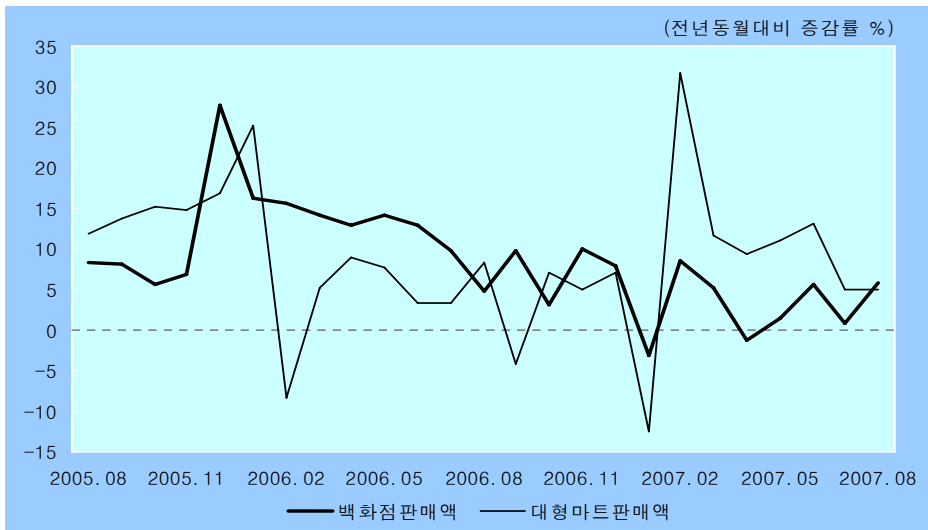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7년				
	8월	4월	5월	6월	7월p	8월p	
판매액	전국	3,355.9 (9.1)	3,838.0 (4.6)	3,921.4 (5.6)	3,665.9 (9.3)	3,784.8 (4.2)	3,560.9 (6.1)
	서울	1,069.3 (6.8)	1,311.6 (3.1)	1,322.4 (5.5)	1,228.9 (9.0)	1,231.0 (2.8)	1,127.8 (5.5)
	백화점	530.0 (4.7)	750.8 (-1.3)	733.9 (1.5)	658.3 (5.7)	658.4 (0.8)	561.0 (5.8)
	대형마트 (할인점)	502.2 (8.3)	524.6 (9.4)	552.2 (11.1)	536.3 (13.2)	531.8 (4.9)	528.0 (5.1)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9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상승

■ 전국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상승

- 9월 전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6% 상승함
- 단체여행비(해외) 등 개인서비스 부문은 하락하였으나, 태풍과 잦은 호우로 채소류의 출회가 감소되어 농축수산물에 상승하고, 경유, 금반지 등이 오른 공업제품과 도시가스 등이 오른 공공서비스 부문이 상승한데 기인함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상승

- 9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6%로 상승함
- 전국의 물가상승률(0.6%)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난 5년간 9월 평균 물가상승률(0.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목별로 보면 교양및오락(-0.3%) 부문은 하락하였으나, 식료품및비주류음료(2.9%), 주거및수도광열(1.0%), 기타잡비(0.5%), 교통(0.2%), 가구집기및가사용품(0.1%), 보건의료(0.1%) 부문은 상승함

■ 상품부문과 서비스부문 모두 상승

- 상품성질별 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상품부문은 전월대비 1.3% 상승하고, 서비스부문도 0.3% 상승함
- 상품부문을 보면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4.7%로 크게 상승한 반면, 공업제품은 금반지와 경유 등이 올라 전월대비 0.3% 상승함
- 서비스 부문을 보면 집세는 전세, 월세 부문이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하고, 공공서비스는 도시가스료 등이 올라 전월대비 0.8% 상승하였으며, 개인서비스는 단체여행비(해외)는 내렸으나 공동주택관리비, 간병도우미료 등이 올라 전월대비 0.0%로 보합을 나타냄

■ 신선식품지수 큰 폭 상승

- 생활물가는 전월대비 0.9% 상승하여 지난달의 하락세가 상승세로 급반등됨
- 신선식품지수는 신선채소와 신선어개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8.9% 상승하여 지난달(0.2%)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증가함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9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비	전국	0.3 (2.5)	0.4 (2.5)	0.1 (2.3)	0.0 (2.5)	0.4 (2.5)	0.1 (2.0)	0.6 (2.3)	
	서울	0.2 (2.3)	0.5 (2.6)	0.1 (2.5)	0.0 (2.8)	0.3 (2.7)	0.1 (2.2)	0.6 (2.6)	
	상품 성질별	상품	0.1 (1.3)	0.5 (1.9)	0.2 (1.5)	-0.2 (1.8)	0.5 (2.1)	0.1 (0.8)	1.3 (1.9)
		서비스	0.3 (2.8)	0.4 (2.9)	0.0 (2.4)	0.0 (3.1)	0.2 (2.9)	0.1 (3.0)	0.3 (3.0)
	생활물가	0.5 (3.2)	0.7 (3.2)	0.2 (3.5)	-0.1 (3.5)	0.4 (3.6)	-0.1 (2.7)	0.9 (3.2)	
	신선식품	1.7 (1.3)	0.7 (3.4)	-2.7 (4.6)	-3.2 (7.4)	3.7 (10.4)	0.2 (-1.2)	8.9 (5.7)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외 · 국 · 인 · 투 · 자 |

3/4분기 서울의 외국인투자 전년동기대비 증가

- 2007년도 3/4분기 외국인투자는 2006년도 3/4분기에 비해 투자건수와 투자금액 모두 증가
 - 투자건수는 전국이 전년동기(711건)에 비하여 29.5% 증가한 921건으로 나타났고, 서울은 전년동기(288건) 대비 50.3% 증가한 433건으로 나타남
 - 투자금액은 전국이 전년동기(26억400만불)에 비하여 13.2% 증가한 29억4,900만불로 나타났고, 서울은 전년동기(5억7,900만불) 대비 68.1% 증가한 18억1,700만불로 나타남

- 산업부문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전체 투자금액의 94.8%를 차지하고 제조업이 3.5%, 기타분야가 1.7%를 차지
 - 제조업의 경우 6,770만불로 전년동기 8,230만불 대비 21.6% 감소함
 - 서비스업의 경우 17억2,400만불로 전년동기 4억9,550만불 대비 248% 급증함
 - 기타분야의 경우 2,900만불로 전년동기 80만불 대비 263% 급증함

- 업종별로 보면, 금융보험이 전체 투자금액의 38.8%로 가장 많고, 이어 부동산 임대 26.4%, 운수창고(물류)14.9%, 비즈니스서비스업 4.9%, 도소매(유통)가 4.3%로 나타남
 - 금융·보험의 경우 7억600만불로 전년동기 1억6천만불 대비 314% 증가
 -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4억8,000만불로 전년동기 6,900만불 대비 596% 증가함
 - 운수창고(물류)의 경우 2억7,100만불로 전년동기 300만불 대비 300% 증가함
 - 비즈니스서비스업의 경우 8,900만불로 전년동기 1억 7,000만불 대비 47% 감소함
 - 도소매(유통)의 경우 7,730만불로 전년동기 8,300만불 대비 6.4% 감소함

- 지역별로는 EU가 10억 7,000만불로 전체 투자금액 중 58.8%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이 미국 2억3,200만불(12.8%), 일본 1억 2,000만불(6.6%) 순으로 나타남
 - EU의 경우 전년동기 3억4,100만불 대비 214% 증가함
 - 미국의 경우 전년동기 9,700만불 대비 139% 증가함
 - 일본의 경우 전년동기 6,400만불 대비 88%가 증가함

〈표〉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건, 천불)

구 분	2006.3/4		2007.3/4		증감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축수산업	1	0,05	1	0,06	0	120
제조업	33	82	35	63,7	6	-23.3
식품	1	5	0	0	0	0
섬유직물의류	2	0.3	1	0,1	-50	0
제지목재	1	0.1	0	0	0	0
화학	2	0.3	6	18,5	300	606
의약	0	0	2	0,6	-	-
비금속광물	2	19	0	0	-50	-
금속	1	0,4	3	6,3	200	1475
기계 및 장비	4	0,3	1	3,6	-75	1,100
전기전자	14	39	13	7	-7.1	-82
운송용 기계	2	0,3	3	26,4	50	8700
기타제조	4	17	6	1,2	50	-92.9
서비스업	251	495	390	1,724.4	55.4	248.3
도소매(유통)	119	83	225	77,7	89	-6.4
음식·숙박	11	7	20	34,6	81.8	400
운수창고(물류)	12	3	10	271,3	-16.7	300
통신	2	0,5	3	0,6	50	20
금융·보험	30	160	30	706,4	0	341
부동산임대	11	69	21	480	90.9	595.7
비즈니스서비스업	55	170	64	89,9	16.3	-47
문화오락	6	2	11	63,5	83.3	3,100
공공 기타서비스	5	0,5	6	0,4	20	-25
전기가스수도건설	3	0,8	0	0	-	-
종합 건설	0	0	5	28,2	-	-
전문직별 건설	0	0	2	0,8	-	-
합 계	288	579	433	1,817	50.3	68.1

주: 투자금액 및 금액비율은 반올림 수치이며 신고기준임
 자료: 서울시 투자유치담당관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9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비 포함세

■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포함

- 9월 전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0%(40만5천명) 증가한 3,925만9천명이
며, 경제활동인구는 1.0%(24만5천명) 증가한 2,434만1천명임
-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전년동월과 동일하였으며 남자는 74.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고, 여자는 50.6%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함

■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포함

- 9월 서울의 15세 이상 인구는 819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4% 증가하고, 경제활동인
구는 51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함
-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3%p 증가한 63.1%로 남자는 74.8%, 여자는 52.0%임
- 반면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0% 감소함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9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경제활동 인구	전국	0.7 (0.5)	1.0 (1.6)	1.1 (0.8)	1.1 (0.2)	1.1 (-0.5)	1.0 (-1.4)	1.0 (0.5)
	서울	-0.2 (0.4)	0.0 (1.1)	0.7 (0.5)	0.2 (-0.3)	1.0 (0.5)	1.1 (-0.8)	1.2 (0.5)
	남자	-0.3 (0.2)	0.0 (0.8)	0.4 (0.2)	0.8 (-0.1)	1.1 (0.7)	1.6 (-0.5)	1.1 (-0.3)
	여자	-0.1 (0.6)	0.0 (1.5)	0.1 (0.8)	-0.6 (-0.7)	0.9 (0.2)	0.4 (-1.2)	1.4 (1.7)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62.0	62.3	62.7	62.8	62.6	61.7	62.0
	서울	62.5	63.0	63.3	63.1	63.4	62.8	63.1
	남자	74.3	75.0	75.2	75.1	75.6	75.1	74.8
	여자	51.5	51.7	52.1	51.8	51.8	51.2	52.0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취·업·자 |

9월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증가세 지속

■ 전국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9월 전국의 취업자는 2,362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29만2천명) 증가하여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의 57.9%(1,368만1천명), 여자는 42.1%(994만1천명)로 남자는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하고, 여자도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함
-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1% 감소한 반면에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는 5.0% 증가함
- 청년층은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월(-0.9%)에 비해 감소폭이 1.2%p 증가한 -2.1%이며, 고령층은 전년동월대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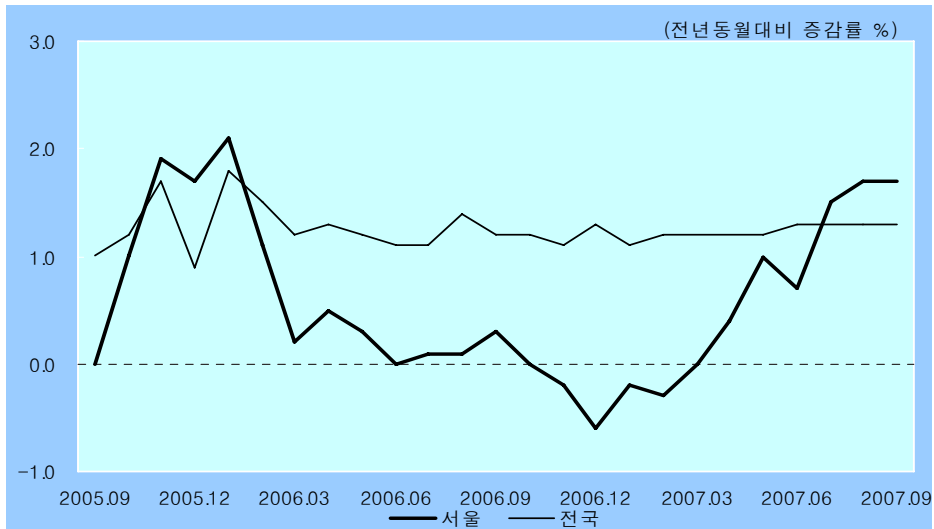
- 9월 서울의 취업자는 497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8만2천명) 증가함
- 전국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서울의 취업자 수도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 수의 57.1%(284만명), 여자는 42.9%(213만5천명)로 전체 취업자중 남자 취업자의 비중은 전국에 비해 0.8%p 낮고, 여자는 전국에 비해 0.8%p 높음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1% 증가하고 여자는 2.5% 증가하여 남자는 전월(1.6%)에 비해 전년동월대비 하락을 보인 반면, 여자는 전월(1.9%)에 비해 전년동월대비 상승을 보임
- 전체 취업자의 20.8%(103만3천명)를 차지하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2% 감소함
- 전체 취업자의 15.5%(77만3천명)를 차지하는 고령층 취업자(55세 이상)는 전년동월대비 10.7% 증가하여 전월(0.7%p)에 비해 전년동월비 증가폭이 2.6%p로 확대됨
- 고령층 취업자의 경우 55세에서 60세 사이의 취업자가 5.9% 증가한 것에 비해 60세 이상은 14.5%로 크게 증가함

〈표〉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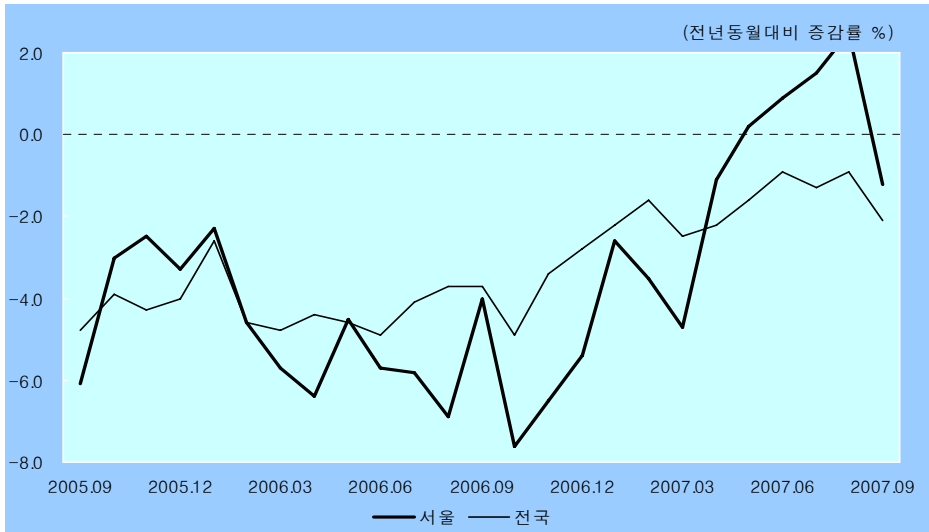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구 분	2006년	2007년					
		9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취업자	전국	1.2 (0.7)	1.2 (1.7)	1.2 (1.0)	1.3 (0.2)	1.3 (-0.3)	1.3 (-1.2)	1.3 (0.7)
	서울	0.3 (0.6)	0.4 (1.2)	1.0 (0.8)	0.7 (-0.1)	1.5 (0.3)	1.7 (-0.8)	1.7 (0.6)
	남자	0.4 (0.2)	0.2 (0.6)	0.6 (0.9)	1.0 (-0.1)	1.0 (0.4)	1.6 (-0.7)	1.1 (-0.3)
	여자	0.2 (1.1)	0.8 (1.9)	1.6 (0.6)	0.3 (-0.2)	2.1 (0.2)	1.9 (-1.0)	2.5 (1.8)
청년층 취업자	전국	-3.7 (-1.4)	-2.2 (0.6)	-1.6 (1.2)	-0.9 (-0.1)	-1.3 (2.9)	-0.9 (-3.0)	-2.1 (-2.5)
	서울	-4.1 (0.7)	-1.1 (2.5)	0.2 (1.7)	0.9 (-0.3)	1.5 (1.7)	2.5 (-2.3)	-1.2 (-3.0)
고령층 취업자	전국	4.1 (2.0)	6.6 (5.9)	6.6 (3.3)	5.6 (0.2)	5.7 (-2.2)	5.5 (-0.6)	5.0 (1.5)
	서울	2.3 (1.3)	7.7 (3.2)	8.0 (0.9)	5.1 (-1.3)	9.4 (1.5)	8.1 (-0.7)	10.7 (3.8)
	55-59세	2.7 (2.8)	1.9 (2.3)	4.2 (2.2)	0.4 (-3.2)	5.7 (3.4)	7.2 (0.2)	5.9 (1.6)
	60세 이상	1.7 (0.1)	12.7 (3.6)	11.2 (0.0)	8.7 (0.0)	12.3 (0.2)	8.7 (-1.3)	14.5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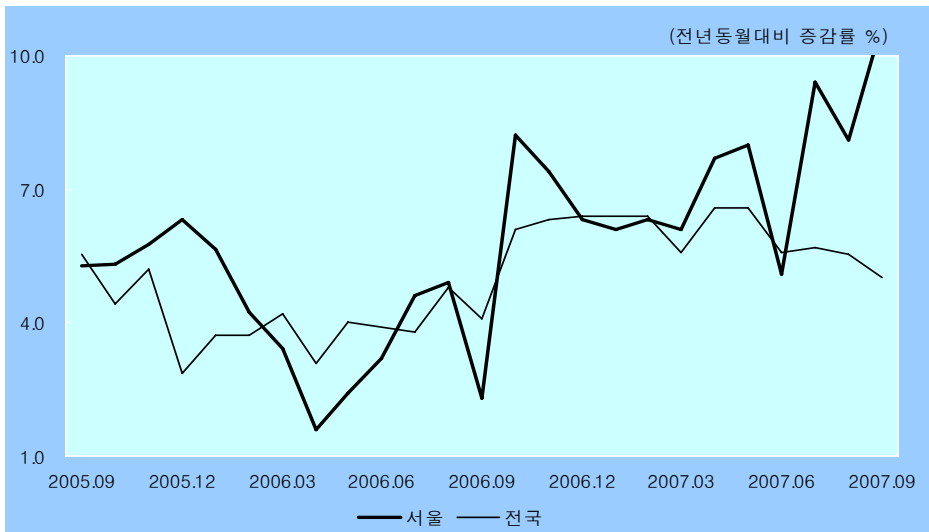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 감소

- 9월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8.6%)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27.0%), 제조업(14.2%), 전기·운수·통신·금융업(11.0%), 건설업(8.8%)의 순임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7.3% 증가하여 전월(9.4%)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으며, 이어 전기·운수·통신·금융업(6.3%), 건설업(2.9%)의 취업자 수가 증가함
- 반면 제조업은 4.8%, 도소매·음식숙박업은 4.7% 감소함
-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폭은 지난달(-7.5%)에 비해 큰 폭으로 축소됨

■ 서비스·판매 종사자와 사무종사자 수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9월 직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자(31.6%)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28.4%), 서비스·판매 종사자(24.3%), 사무종사자(15.5%) 순임
- 서비스·판매 종사자(-1.9%)와 사무종사자(-0.2%)를 제외하고, 전문·기술·행정관리자(6.0%)와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0.6%)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함
- 서비스·판매 종사자는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를 나타내며, 지난달(-3.8)에 비해 감소폭(1.9%p)이 축소됨

■ 임금근로자 수 증가세 지속

- 9월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74.0% (368만2천명), 비임금근로자는 26.0%(129만3천명)로 전년동월대비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2%p 증가함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3.4%(12만1천명) 증가하고, 비임금근로자는 2.9%(3만9천명) 감소하여 지난달에 이어 비임금근로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이어감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0.3%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0.5%)와 임시근로자(-4.4%)는 감소함
-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14.4% 감소하고, 자영업주는 0.7% 감소함

〈표〉 서울시 고용동향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9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산업별	· 제조업	-4.1 (0.6)	-6.2 (2.3)	-7.0 (-0.5)	-5.0 (-0.4)	-7.6 (-0.4)	-7.5 (-2.5)	-4.8 (3.5)
	SOC 및 기타서비스업	1.1 (0.6)	1.7 (1.0)	2.6 (1.1)	1.9 (-0.1)	3.2 (0.4)	3.5 (-0.6)	2.6 (-0.2)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2.3 (1.5)	6.0 (1.5)	8.8 (1.7)	9.2 (1.7)	10.0 (0.8)	9.4 (-0.6)	7.3 (-0.5)
	· 도소매·음식숙박	-0.8 (-0.2)	-4.0 (-1.8)	-5.1 (-0.3)	-6.9 (-0.2)	-5.0 (1.7)	-4.0 (-0.6)	-4.7 (-0.9)
	· 전기·운수·통신·금융	1.0 (-2.8)	3.4 (5.6)	4.1 (3.0)	4.3 (-1.9)	3.3 (0.7)	2.9 (-0.4)	6.3 (0.3)
	· 건설업	3.1 (4.4)	0.4 (2.2)	0.5 (0.1)	-2.0 (-5.2)	2.5 (1.9)	4.5 (-0.5)	2.9 (2.8)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9 (1.6)	1.7 (1.5)	2.8 (0.5)	7.1 (4.0)	6.2 (-1.4)	7.3 (0.0)	6.0 (0.4)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1 (1.4)	-1.7 (2.2)	-1.5 (1.1)	-0.3 (-2.9)	-0.7 (1.7)	1.2 (-1.6)	0.6 (0.8)
	서비스·판매종사자	-2.1 (-2.1)	-0.7 (-1.0)	0.7 (0.1)	-8.8 (-2.1)	-2.6 (2.0)	-3.8 (0.1)	-1.9 (-0.2)
	사무종사자	1.7 (1.9)	4.0 (2.2)	2.9 (1.8)	6.7 (-0.1)	3.1 (-1.3)	1.3 (-2.6)	-0.2 (0.4)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1.2 (0.7)	1.8 (1.7)	1.9 (0.9)	2.7 (-0.6)	1.6 (0.7)	3.0 (-1.2)	3.4 (1.1)
	비임금근로자	-2.0 (0.4)	-3.3 (-0.3)	-1.2 (0.5)	-4.5 (1.0)	1.1 (-0.8)	-1.7 (0.3)	-2.9 (-0.8)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실 · 업 · 률 |

9월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전국의 실업률 전월대비 보합세

- 9월 전국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한 3.0%(실업자 71만9천명)로 전월(3.1%)에 비해 0.1%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3%(실업자 47만2천명)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하였으며, 여자는 2.4%(실업자 24만7천명)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함
- 교육정도별로 보면 중졸 이하는 1.7%, 고졸은 3.4%, 대졸 이상은 3.2%로 고졸의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서울의 실업률 소폭 하락

- 9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한 3.8%(실업자 19만5천명)임
- 9월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격차(0.8%p)는 6월 이후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며, 지난 5년간 9월 평균 실업률 4.3% 보다 0.5%p 낮은 수준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6%, 여자는 2.7%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1%p 증가한 반면, 여자는 1.0%p로 큰 폭으로 감소함
- 전국에 비해 남자는 1.6%p 높은 반면에, 여자는 0.3%p 낮은 수준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전국과의 격차가 더 큼
- 남자와 여자의 실업률 격차는 전월에 비해 0.1%p 증가한 1.9%p로, 5월 이후 남자와 여자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음

〈표〉 실업동향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9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국	3.2	3.4	3.2	3.2	3.2	3.1	3.0	
서울	4.2	4.1	3.8	3.6	3.8	3.8	3.8	
성 별	남자	4.5	4.8	4.1	4.1	4.4	4.6	4.6
	여자	3.7	3.2	3.4	2.9	3.0	2.8	2.7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8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큰 폭 증가

■ 전국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8월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6조5,863억 원으로 지난해 기저효과 등으로 공공부문이 크게 증가한데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3.4%의 증가를 보임
- 발주자별로 보면 공공부문에서 72.5% 증가하고, 민간부문에서 6.0% 증가함
- 공종별로 보면 토목부문에서 35.9% 증가하고, 건축부문은 7.4% 감소함

■ 서울의 건설수주액 큰 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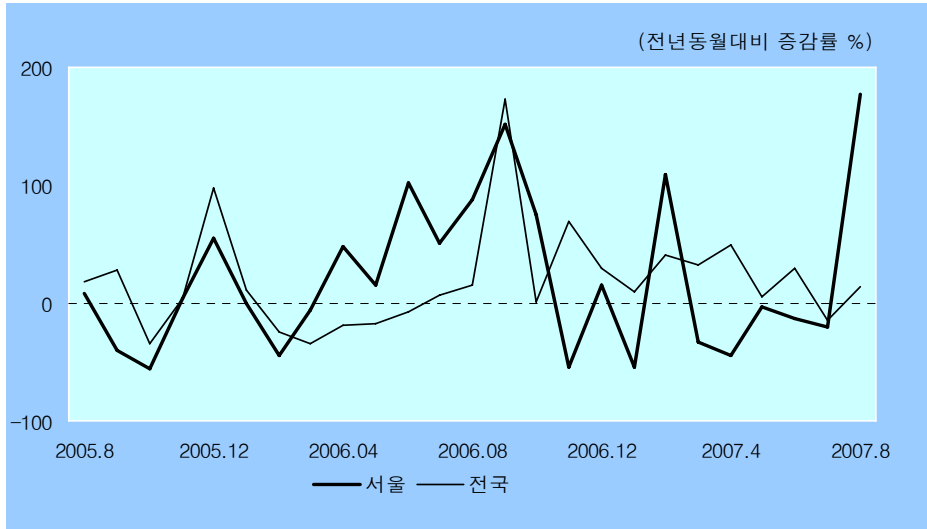
- 8월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2조3,257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7.9% 증가함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전국의 35.3%를 차지함
- 발주자별로 보면 기타토목(지역난방열수송관) 부문의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44.8% 증가하였으며, 신규·재건축·재개발주택 및 사무실 부문의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358.4% 증가함
- 공종별로 보면 전체 건설수주액의 94.6%를 차지하는 건축 부문에서 167.3% 증가하였으며, 5.1%를 차지하는 토목 부문에서 890.4% 감소함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8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국	5,807.9	7,840.6	7,096.3	11,901.6	6,059.5	6,586.3	13.4	8.7	
서울	836.8	981.2	1,277.0	2,215.8	890.3	2,325.7	177.9	161.2	
발주 자별	공공	72.4	178.7	15.8	18.6	55.6	104.8	44.8	88.5
	민간	480.0	802.5	1,171.3	2,139.8	834.7	2,200.4	358.4	163.6
공종 별	건축	823.5	939.8	1,233.6	2,161.9	877.6	2,200.8	167.3	150.8
	토목	12.0	35.4	36.5	46.5	7.8	118.7	890.4	1421.8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07년 9월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3,688천㎡로 전년동월대비 12.4% 감소함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연립(35.4%)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단독의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33.8% 감소하고, 아파트는 24.7%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지난해 9월 대비 18.0% 감소함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문교 및 사회(51.1%)만 증가하고, 공업(79.3%), 기타(13.7%), 상업(10.0%)은 모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11.6% 감소함
- 2007년 9월 건축허가면적이 가장 큰 구는 구로구(1,229.7천㎡)로 부동산중개업소가 750.8천㎡를 차지함
- 아파트 건축허가면적은 광진구가 222.3천㎡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표〉 건축허가면적

(단위: 천㎡,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9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서울	4,209.3	5,219.7	4,508.3	3,341.9	3,844.0	3,688.4	-12.4	-4.0	
주거용	소계	493.8	304.4	175.0	260.7	290.5	405.0	-18.0	39.4
	단독	13.0	15.4	14.9	16.3	14.8	8.6	-33.8	-41.9
	연립	57.0	91.7	114.9	141.7	84.8	77.2	35.4	-9.0
	아파트	423.8	196.1	44.1	98.3	189.5	319.2	-24.7	68.4
비주거용	소계	3,715.5	4,915.2	4,333.3	3,081.2	3,553.5	3,283.3	-11.6	-7.6
	상업	3,085.5	4,298.3	3,903.3	2,468.3	2,998.2	2,776.2	-10.0	-7.4
	공업	237.1	89.7	1.6	109.4	32.7	49.1	-79.3	50.2
	문교/사회	273.7	465.8	168.0	312.6	483.7	413.5	51.1	-14.5
	기타	45.9	47.0	260.5	177.0	38.9	39.6	-13.7	1.8

주: 연립은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 포함

자료: 서울시 건축과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9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9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소폭(0.3%) 상승함
- 가을 이사철로 인한 계절적인 수요증가와 국지적인 개발 호재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보임
- 매매가격 증감률의 장기평균 추이를 보면 9월은 0.6%의 증감률을 보였으나 올해는 0.3%로 나타나 장기평균(0.6%)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9월은 가을 이사철 수요로 인해 매매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나 올해 9월은 관망세가 지속되어 장기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상승률이 전월과 동일한 0.1%로 나타났으며, 단독주택이 0.3%, 연립주택이 0.8% 상승하여 연립주택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됨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9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상승폭이 8월에 비해 0.1%p 증가함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전국과의 격차는 전월과 동일함
- 세부지역별로 강북은 0.6% 상승하고, 강남은 0.2% 상승하여 강북과 강남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 주택유형별로 보면 연립주택이 전월대비 0.8% 상승하였으며, 단독주택은 0.6%, 아파트는 0.2% 상승을 보여 전국평균에 비해 단독주택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임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9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국	0.5	0.1	0.0	0.1	0.3	0.2	0.3	9.1	
서울	0.8	0.2	0.1	0.3	0.5	0.3	0.4	14.6	
아파트	0.6	0.0	-0.2	0.1	0.3	0.2	0.2	15.7	
지역별	강북	0.7	0.5	0.4	0.5	0.7	0.4	0.6	16.6
주택매매	강남	0.9	0.0	-0.2	0.1	0.4	0.3	0.2	12.8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 주요 상승지역은 중랑구, 용산구, 중구, 성북구

- 강북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강북 14개 구 중 10개 구가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4%)을 웃돌고 있으며, 이 중 5개 구가 강북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6%)을 상회함
- 중랑구(1.7%)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어 용산구(1.3%), 중구(0.9%), 성북구(0.8%), 강북구(0.7%), 도봉구(0.6%), 동대문구(0.6%), 서대문구(0.6%), 은평구(0.6%), 노원구(0.5%)의 순임
- 반면 마포구(0.2%), 성동구(0.0%), 종로구(0.0%)는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을 하회함

■ 강남 주요 상승지역은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

- 강남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 11개 구 중 6개 구가 강남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2%)을 상회함
-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가 0.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가 0.3%로 그 뒤를 이음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2% 상승하여 전월과 상승폭이 동일함
- 강북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5% 상승하고, 강남은 0.1% 상승하여 강북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강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구별로 보면 강북구(1.5%), 중랑구(1.1%), 금천구(0.7%), 노원구(0.5%), 동대문구(0.5%), 성북구(0.5%), 중구(0.5%), 관악구(0.5%), 동작구(0.5%), 도봉구(0.4%), 은평구(0.4%), 강서구(0.4%), 서대문구(0.3%), 용산구(0.3%)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0.2%)을 상회함
- 반면 송파구(-0.2%), 강남구(-0.2%), 강동구(-0.1%)는 전월에 비해 가격이 하락하고, 종로구, 서초구, 영등포구는 전월대비 0.0%로 보합을 보임
- 서울의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한 1,755만원으로 전월(0.7%)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됨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서울 평균 가격 이상인 구는 강남구(3,499만원), 서초구(2,756만원), 송파구(2,550만원), 용산구(2,406만원), 양천구(2,118만원), 강동구(1,927만원), 광진구(1,842만원)임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구는 도봉구(958만원), 강북구(944만원), 은평구(934만원), 중랑구(932만원), 금천구(904만원)임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9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세 지속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9월중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함
- 가을 이사철에 따른 계절적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폭이 전월대비 소폭 확대되었으나, 9월의 장기평균 상승률인 1.2%를 크게 하회하여 전반적인 안정세를 지속함
- 전세가격 증감률의 장기추이를 보면 8월은 가을 이사철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9월에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올해 9월은 22년 장기평균인 1.2%를 크게 하회한 0.3%로 안정세를 보임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9월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월대비 상승폭이 전월(0.3%)보다 소폭 축소됨
- 지역별로 보면 강북이 전월대비 0.6% 상승하고, 강남은 0.3% 상승함
-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0.9% 상승하고, 연립주택 0.8%, 아파트는 0.1% 상승하여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9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국	0.8	0.4	0.1	0.0	0.1	0.1	0.3	4.8	
서울	1.3	0.5	0.1	0.1	0.3	0.2	0.4	7.0	
아파트	1.2	0.4	-0.1	0.0	0.1	0.2	0.1	6.4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1.3	0.7	0.2	0.1	0.4	0.2	0.6	8.3
	강남	1.2	0.3	0.0	0.0	0.1	0.2	0.3	5.7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주요 상승지역은 동작구, 종로구, 성북구, 구로구, 중랑구, 은평구, 관악구, 양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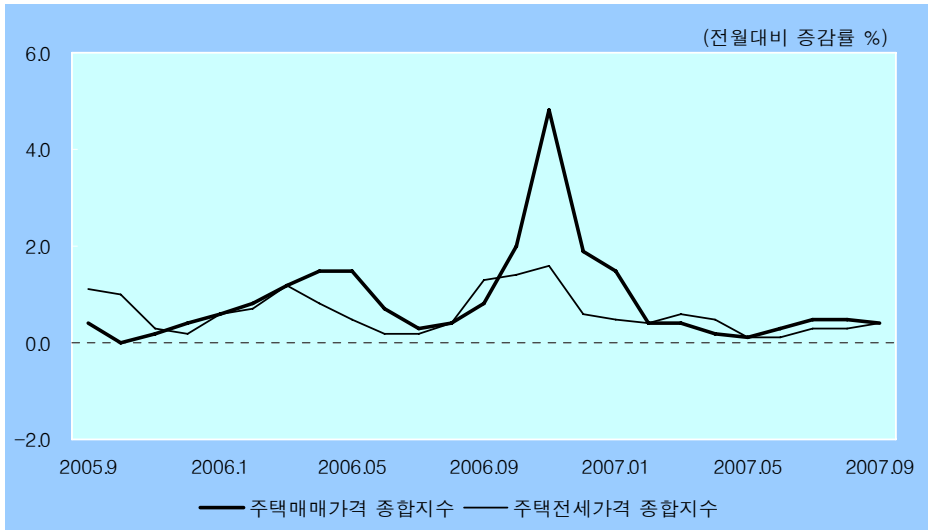
- 지역별로 보면 동작구(1.3%)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종로구(1.2%), 성북구(1.0%), 구로구(1.0%), 은평구(0.9%), 중구(0.9%), 중랑구(0.9%), 강북구(0.8%), 마포구(0.7%), 광진구(0.6%)에서 서울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0.4%)을 상회함
- 송파구(-0.3%), 서초구(-0.1%), 성동구(-0.1%)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강남구는 전월 대비 0.0%로 보합을 나타냄

■ 아파트 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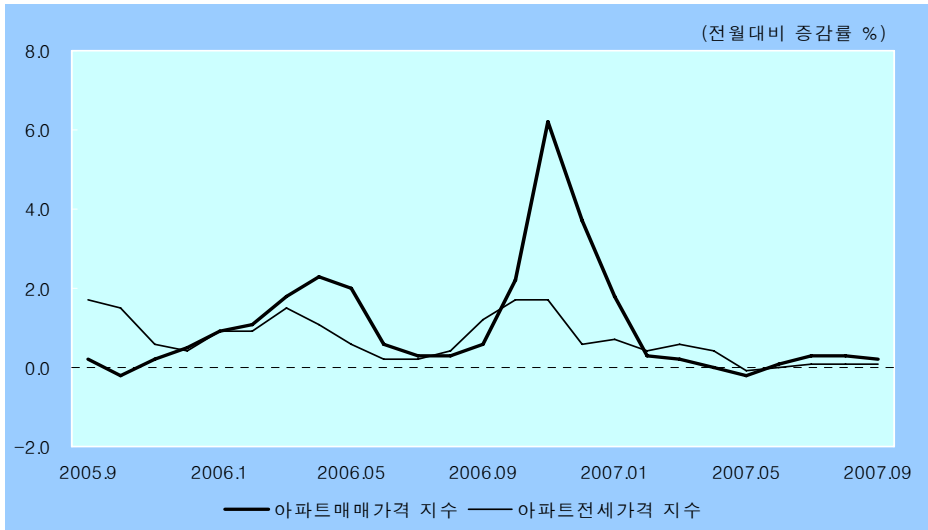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의 미미한 상승을 보임
- 지역별 아파트 전세가격을 보면 강북은 0.3% 상승하고, 강남은 0.1% 하락함
- 구별로는 강북구(1.3%)와 성북구(1.0%)에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종로구(0.7%), 영등포구(0.5%), 노원구(0.4%), 중랑구(0.4%), 금천구(0.4%), 마포구(0.3%), 서대문구(0.3%), 은평구(0.3%), 동대문구(0.2%), 강서구(0.2%), 도봉구(0.1%), 용산구(0.1%), 중구(0.1%), 관악구(0.1%), 구로구(0.1%)에서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며, 강동구와 양천구에서는 전월대비 0.0%로 보합을 보임
- 반면 송파구(-0.6%), 강남구(-0.3%), 동작구(-0.2%), 성동구(-0.2%), 광진구(-0.2%), 서초구(-0.1%)는 전월대비 전세가격이 하락함
- 9월중 서울의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한 624만원으로 강남구(975만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강북구(435만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에 비해 미미한 하락

- 2007년 9월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2.8%로 전월에 비해 미미한(0.1%p) 하락을 보이며, 5월(43.2%)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함
- 이는 전국 평균 54.3%를 11.5%p 하락하고 있으며 전국과의 격차(1월: 11.4%p, 2월: 11.5%p, 3월: 11.4%, 4월: 11.5%, 5월: 11.4%p, 6월: 11.5%p, 7월: 11.5%p, 8월: 11.4%p)는 1월 이후 보합세를 보임
- 지역적으로 보면 강북은 49.1%, 강남은 37.6%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10% 이상으로 지속되면서, 강북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2007년 1월 들어 50% 이하로 떨어진 이후로 9월까지 큰 변화가 없으나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지난 11월 처음 30%대를 기록한 강남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월(37.6%)과 동일함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9월중 KOSPI 지수 2,000p 돌파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소폭 상승

- 9월말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전월대비 0.03%p 상승한 5.46%로,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소폭 상승함
- 이는 한국은행의 콜금리 동결 및 추가 금리인상 기대감 약화, 미국 FOMC(미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 월중반 이후 미국 FOMC 금리인하(5.25%→4.75%)로 인한 주가상승, 은행채 발행물량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감,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상승하여 연중 최고치를 경신함

■ CD(91일) 유통수익률 상승

- 9월말 CD 유통수익률은 5.35%까지 상승한 후 횡보함
- 이는 전월에 이은 발행물량 증가 등에 기인함
- 9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동결 결정에 따라 9월말 콜금리는 4.98%를 유지함

■ 장·단기 금리차 축소

- 9월말 장·단기 금리차는 0.11%p로, 전월에 비하여 0.03%p 축소됨

■ KOSPI 지수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반등

- 9월중 KOSPI 지수는 미국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신용경색 우려로 촉발된 글로벌 증시의 동반 하락과 외국인의 순매도 추세의 지속으로 월초반 하락세(9.12일 1,813.5p)
- 미국 FRB(연방준비은행)의 전격적인 50bp 금리인하 조치로(9.18일) 투자심리가 안정되고, 국내 주식형펀드로의 자금유입 등에 힘입어 재상승함(9.28일 1,946.5p)
- KOSDAQ 지수도 월초반 동반 조정을 보이다가 글로벌증시의 상승 반전과 함께 투자심리가 안정되며 반등함(775.1p→794.6p)

■ 원/달러 환율 하락

- 9월중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인하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달러 약세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915원대까지 하락함
- 월초중반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약화되며 전반적인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주식시장도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920원대로 하락함
- 이후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의 미국 금리인사로 인해 달러 약세가 심화됨에 따라 월말에는 월중 최저 수준인 915원대까지 하락함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대비 증감
		9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금 리	국고채(3년)	4.57	5.17	5.26	5.22	5.43	5.46	0.03
	CD(91일물)	4.59	5.06	5.00	5.10	5.29	5.35	0.06
	콜금리(1일)	4.48	4.56	4.52	4.76	4.98	4.98	0
	장단기 금리차 ¹⁾	-0.02	0.11	0.26	0.12	0.14	0.11	-0.03
주 가	KOSPI ²⁾	1,371.4	1,700.9	1,743.6	1,933.3	1,841.7	1,946.5	104.8
	KOSDAQ ²⁾	600.4	747.9	778.7	811.5	775.1	794.6	19.5
환율 (W/US\$) ²⁾		944.4	929.9	923.8	919.3	938.3	915.1	-23.2

주: 1)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2)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환율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 크게 축소

- 9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0.9조원 증가에 그쳐 증가폭이 크게 축소됨
- 주택담보대출은 가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부진하여 0.3조원 증가에 그침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여타 대출은 추석상여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0.6조원 늘어나는데 그쳐 신장세가 크게 둔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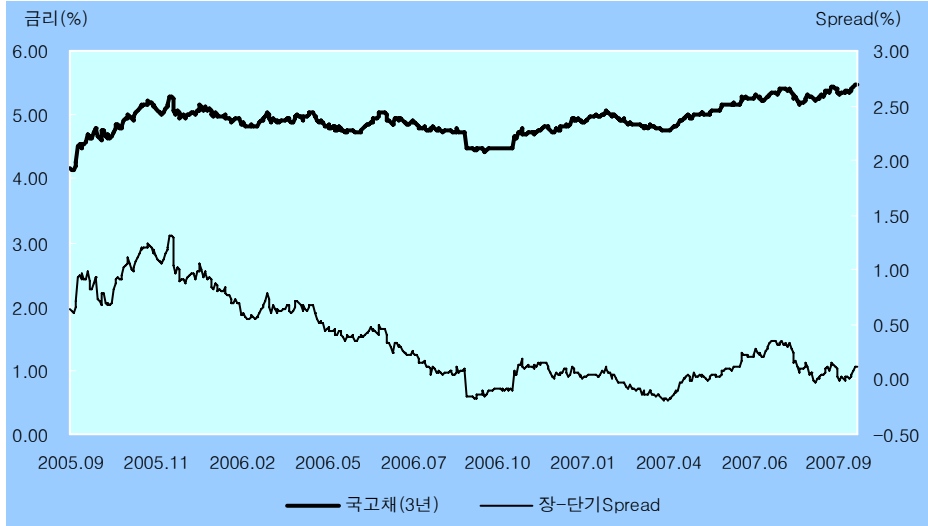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

(기간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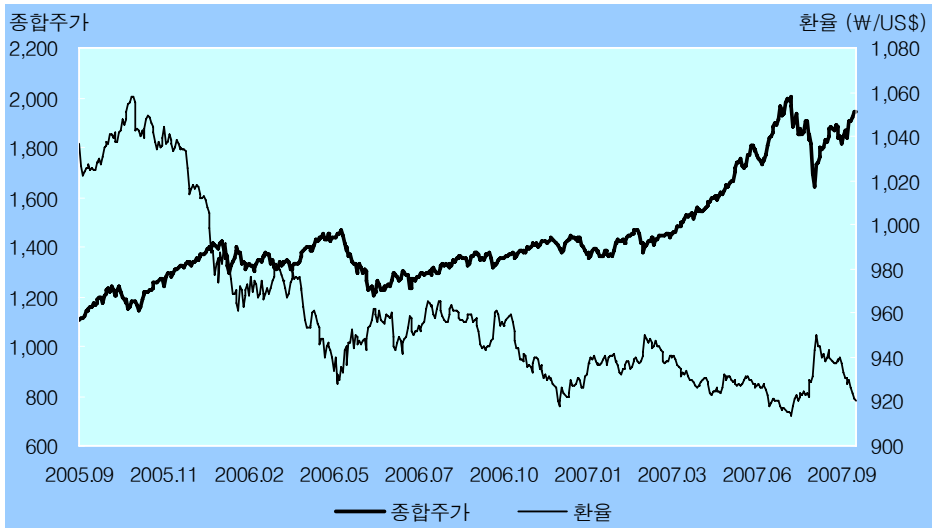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7년				월말잔액		전월비
	연중	9월	6월	7월	8월	9월	2007년		
							8월	9월	
가계대출 ¹⁾	40.9	3.4	0.8	1.8	3.4	0.9	355.5	356.5	0.3
주택담보대출 ²⁾	26.8	2.6	0.7	0.1	0.6	0.3	218.5	218.8	0.1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4.0	0.9	0.0	1.6	2.8	0.6	135.3	135.9	0.4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8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증가액 축소

- 8월말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007조 6,778억원으로, 전월대비 12조 8,624억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액(7월 증가액: 12조 1,409억원)이 확대됨
- 8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395조 247억원으로, 전월대비 5조 6,983억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액은 전월(7조 2,077억원)보다 크게 축소됨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원)

		2006년	2007년				전월대비 증감액
		8월	5월	6월	7월	8월	
전국	예금은행	662,591.0	735,674.4	747,823.0	755,114.0	764,660.6	9,546.6
	비은행기관	206,135.1	231,644.8	234,851.5	239,701.4	243,017.2	3,315.8
	합계	868,726.1	967,319.2	982,674.5	994,815.4	1,007,677.8	12,862.4
서울	예금은행	277,169.2	304,590.3	310,800.2	314,644.3	319,306.4	4,662.1
	비은행기관	56,438.2	70,035.4	71,318.5	74,682.1	75,718.3	1,036.2
	합계	333,607.4	374,625.7	382,118.7	389,326.4	395,024.7	5,698.3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8월 기준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상승

- 8월말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서울의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57.1%로 전월에 비해 0.5%p 상승함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¹⁾ 추이

(단위 : %, %p)

	2006년	2007년					증감
	8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국	83.6	85.0	84.6	84.4	85.9	86.4	0.5
서울	56.4	56.4	56.1	56.0	56.6	57.1	0.5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창 · 업 · 동 · 향 |

9월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감소

■ 전국 신설법인 수 크게 감소

- 9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3,202개로 전년동월대비 23.7%(-995개) 감소함
- 업종별로는 제조업(-3.4%), 건설 및 설비업(-24.7%), 서비스업(29.2%) 등 전업종에서 감소함
- 업종별 비중은 서비스업 60.9%, 제조업 23.8%, 건설 및 설비업 14.1%를 차지함

■ 서울 신설법인 수 크게 감소

- 9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전년동월대비 25.4%(-420개) 감소한 1,233개이고, 전국대비 지역별 비중은 38.5%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36.0%)이 감소하고, 제조업(97.9%)과 건설 및 설비업(3.1%)은 증가함

■ 서울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큰 폭으로 감소

- 서울의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는 전년동월대비 36.0%(-513개) 감소하여 911개를 나타냄
- 부문별로 보면 교육서비스업(69.6%), 기타서비스업(61.5%)가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감소함
- 서울의 전체 신설법인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73.9%로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9월	6월	7월	8월	9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4,197	4,727	4,596	4,298	3,202	-995	-23.7	-1,096	-25.5
서울	1,653	1,781	1,738	1,654	1,233	-420	-25.4	-421	-25.5
서비스업	1,424	1,413	1,408	1,344	911	-513	-36.0	-433	-32.2
제조업	94	205	166	156	186	92	97.9	30	19.2
건설 및 설비업	131	155	161	150	135	4	3.1	-15	-10.0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9월 서울 부도업체수 전월대비 증가

■ 전국 어음부도율 동일

- 9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과 동일함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38개로, 전월(194개) 보다 56개 감소하여 2006년중 평균 211개를 크게 하회함
- 업종별로 제조업(-26개)과 건설 및 설비업(-13개), 서비스업(-15개) 등 전업종이 감소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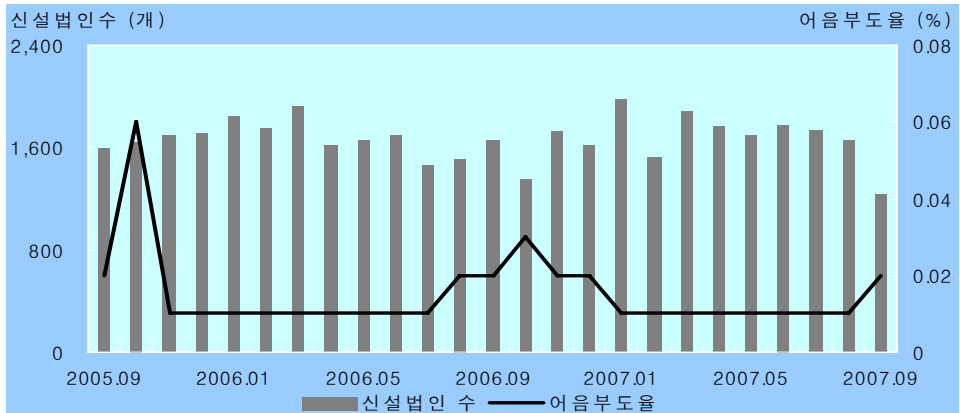
- 9월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대비 0.01%p 상승함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월(63개) 보다 11개 감소한 52개로, 2006년중 평균(74.3개)을 하회함
- 지역별 부도업체 수는 서울이 11개, 지방은 45개(131개→86개) 각각 감소하였고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국 부도업체 수의 37.7%를 차지함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6년 9월	2007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6월	7월	8월	9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3	0.03	0.02	0.02	0	0.0	-0.01	-33.3	
	부도업체 수	228	173	214	194	138	-56	-28.9	-90	-39.5
서울	어음부도율	0.02	0.01	0.01	0.01	0.02	0.01	100.0	0	0.0
	부도업체 수	76	63	61	63	52	-11	-17.5	-24	-31.6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입자료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9월 소상공인의 보증 비중 연중 최고치 기록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10월중 종료 예정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9월중 1,223건, 21,473백만원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 34.0%, 금액 32.7% 감소함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신용보증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였으나, 건당평균금액이 다소 증가하며 전월수준을 유지함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이 당초 계획 1,000억원 중에서 9월말 현재 약933억원 지원되어 10월중 종료가 예상됨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9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1,171	3,111	2,009	2,002	1,852	1,223	-629	-34.0	52	4.4
금액	39,789	57,591	38,007	36,270	31,927	21,473	-10,454	-32.7	-18,316	-46.0
건당평균금액	34.0	18.5	18.9	18.1	17.2	17.6	0.4	2.3	-16.4	-48.2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전월 수준의 비율 유지

- 9월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은 전월과 비교하여 다소 감소하던 도소매업의 비중(금액기준)이 2.2%p 증가하여 37.2%를 보였으며, 전반적인 현황은 전월수준을 유지함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117	395	242	280	189	1,223
비율		9.6	32.3	19.8	22.9	15.4	100
금액		2,294	7,992	3,942	4,807	2,438	21,473
비율		10.7	37.2	18.4	22.4	11.3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 90%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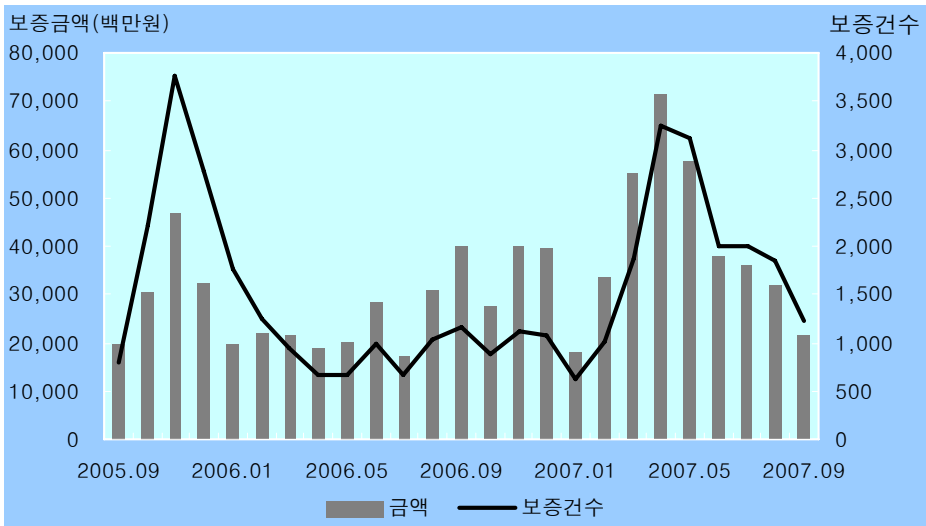
-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이 3개월 연속하여 증가하여 92.0%에 이른 반면, 소기업 및 중기업의 비중(금액기준)은 꾸준히 감소하여 각각 5.3%, 2.7%를 나타냄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7.07	2007.08	2007.09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1,893	1,762	1,176	-586
	비율	94.6	95.2	96.2	1.0
	금액	29,601	27,494	19,748	-7,746
	비율	81.6	86.1	92.0	5.9
소기업	건수	73	69	39	-30
	비율	3.6	3.7	3.2	-0.5
	금액	4,108	2,993	1,146	-1,847
	비율	11.3	9.4	5.3	-4.1
중기업	건수	36	21	8	-13
	비율	1.8	1.1	0.6	-0.5
	금액	2,561	1,440	579	-861
	비율	7.1	4.5	2.7	-1.8
합계	건수	2,002	1,852	1,223	-629
	비율	100	100	100	0
	금액	36,270	31,927	21,473	-10,454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9월 서울 수출 증가세 확대, 수입 증가세 다소 둔화

■ 전국 수출 감소

- 9월 전국의 수출은 293억 8,200만불로, 전년동월대비 0.9% 감소함
- 큰 폭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대비 수출증가율이 감소한 것은 추석연휴로 인하여 조업일수가 4일 감소한 데 기인함
- 조업일수 감소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15.2억불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수출증가세를 유지함
- 품목별로는 선박류(49.7%), 철강제품(18.4%) 등이 증가한 반면 무선통신기기(-2.2%), 반도체(-1.6%) 등은 감소함

■ 전국 수입 감소

- 9월 전국의 수입은 270억 2,970만불로,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함
- 조업일수가 반영된 일평균 수입액은 13.9억불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여 전년동월 대비 증가세를 시현함
- 용도별로는 철강제품(18.1%) 등을 중심으로 원자재 수입이 증가하고 내수회복 등으로 인해 소비재 수입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함

■ 서울 수출 감소

- 9월 서울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5% 감소한 21억 3,150만불로, 증가세가 감소세로 돌아섬
- 품목별로는 합성수지(26.6%), 반도체(6.0%) 등을 제외한 무선통신기기(-30.6%), 의류(-20.1%), 편직물(-19.6%) 등 대부분이 감소함
- 국가별로는 베트남(27.7%) 등이 감소한 가운데 중국(-2.8%), 미국(-14.4%), 일본(-10.7%) 등 대부분이 감소함

■ 서울 수입 감소

- 9월 서울의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6% 감소한 52억 3,610만불을 기록함
- 품목별로는 반도체(-5.2%), 육류(-3.3%) 등은 감소하고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233.2%), 전자응용기기(65.6%), 무선통신기기(30.7%) 등이 증가함

- 국가별로는 미국(-28.0%), 독일(-10.0%) 등이 감소하고 중국(1.7%), 일본(19.9%) 등은 증가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9월	5월	6월	7월	8월p	9월p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29,651.2	31,046.3	31,997.9	30,220.0	31,012.8	29,382.0	-269.2	-0.9	-1630.8	-5.3
	수입	27,636.6	29,780.4	28,475.6	29,204.5	29,627.4	27,029.7	-606.9	-2.2	-2597.7	-8.8
서울	수출	2,279.7	2,284.0	2,364.8	2,281.2	2,334.1	2,131.5	-148.2	-6.5	-202.6	-8.7
	수입	5,378.5	5,980.1	5,769.8	5,603.4	5,975.2	5,236.1	-142.4	-2.6	-739.1	-12.4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7년 9월		2006년 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2,131,512	-6.5	2,279,715	13.4
1	반도체	167,203	6	157,728	31.6
2	편직물	152,504	-19.6	189,682	31.8
3	합성수지	115,264	26.6	91,069	28.8
4	의류	111,889	-20.1	140,052	-3.5
5	고무제품	87,528	-6.9	93,986	34.5
6	자동차부품	83,424	9.4	76,250	37.4
7	무선통신기기	81,350	-30.6	117,190	31.1
8	컴퓨터	73,270	-0.9	73,908	-14.6
9	인조장섬유직물	59,379	-20.9	75,071	8
10	기타직물	48,453	-26	65,65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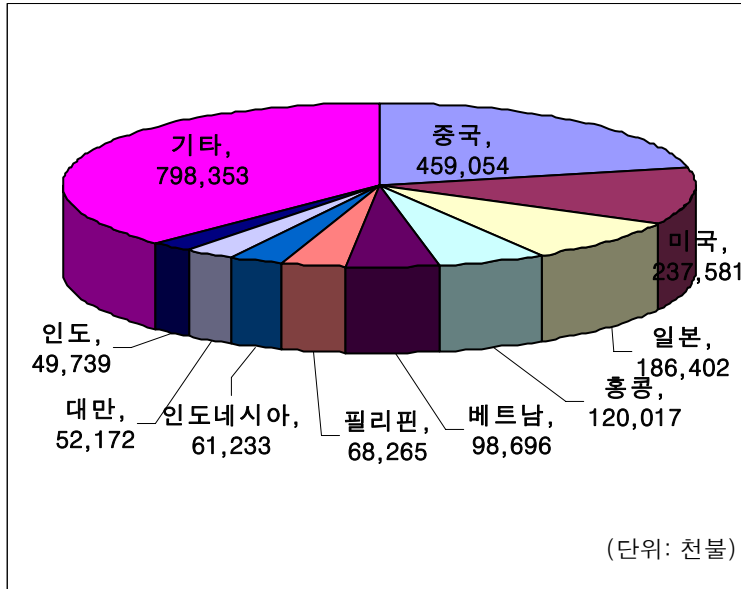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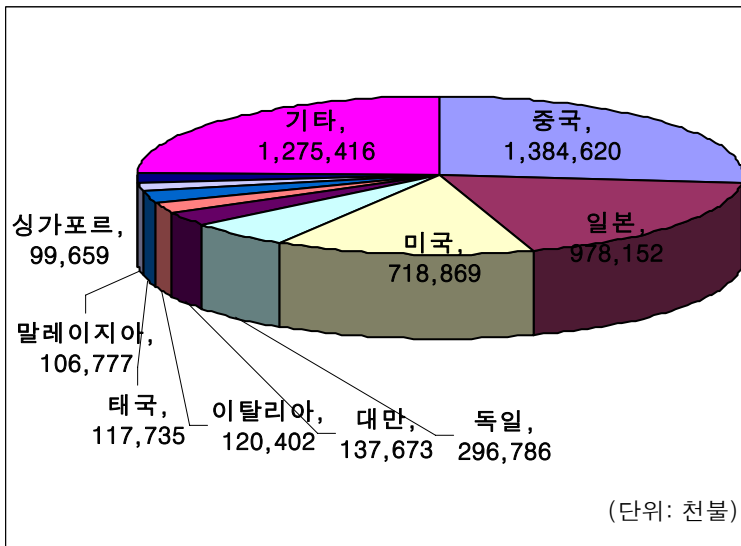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7년 9월		2006년 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5,236,089	-2.6	5,378,544	27.6
1	컴퓨터	403,833	2.8	392,767	-10.2
2	반도체	389,977	-5.2	411,452	23.3
3	의류	359,665	0.4	358,162	109.9
4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210,600	233.2	63,209	56.3
5	자동차	208,180	9.6	189,897	-16.4
6	전자응용기기	152,626	65.6	92,189	-28.7
7	무선통신기기	118,147	30.7	90,373	16.4
8	육류	106,184	-3.3	109,821	23
9	농약및의약품	95,052	39.4	68,204	-7.3
10	유선통신기기	91,516	8.2	84,549	7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